

민쌤: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사뿐사뿐 민쌤입니다.

권쌤: 안녕하세요, 반짝반짝 권쌤입니다.

민쌤: 권 선생님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

권쌤: 네, 잘 지냈어요. 요즘 저는 한국 예능 프로에 나왔던 디저트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.

민쌤: 아, 그래요? 어떤 디저트들이 있는데요?

권쌤: 민 선생님, 혹시 퐁카롱이라고 아세요?

민쌤: 퐁카롱요? 어, 처음 들어 보는데요.

권쌤: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디저트인데요. 아직까지 인기가 많더라고요.

민쌤: 그렇군요. 퐁카롱은 어떤 디저트인가요?

권쌤: 마카롱 아시지요?

민쌤: 네, 알지요. 가운데 크림이 들어 있는, 예쁜 색깔의 달고 맛있는 디저트잖아요.

권쌤: 맞아요. 그런데 퐁카롱은 그 마카롱의 크림 부분을 가득 채워서 마카롱을 뚱뚱하게 만든 거예요.

민쌤: 아, 뚱뚱한 마카롱이어서 퐁카롱이라고 부르는군요.

권쌤: 맞아요.

민쌤: 참 재미있는 이름이네요.

권쌤: 그렇죠? 그리고 마카롱의 신기하고 예쁜 색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요.

민쌤: 그렇군요.



출처: [럭키뚜레블님 블로그](#)

권쌤: 맛도 정말 다양해서 마카롱과 차별성을 두었어요.

민쌤: 아, 그럼 가운데 들어가는 크림 부분의 맛이 서로 다른가요?

권쌤: 크림만이 아니라 크림을 덮는 과자 부분도 맛이 다양해요.

민쌤: 그래요?

권쌤: 고소한 인절미 맛도 있고요. 오레오 과자 맛이 나는 톱카롱도 있어요.

민쌤: 인절미 떡 맛이 난다니 신기하네요.

권쌤: 그뿐이 아니에요. 수박, 체리, 복숭아 등 과일 맛이 나는 톱카롱도 정말 맛있어요.

민쌤: 과일 맛은 상큼할 것 같은데요.

권쌤: 그렇죠? 또 커피 맛도 있고 케익 맛도 있어요.

민쌤: 생각보다 맛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.

권쌤: 맞아요. 저는 마카롱보다 톱카롱이 훨씬 맛있더라고요.

민쌤: 입 안 가득 넣어서 먹는 재미가 있을 거 같아요.

권쌤: 네. 식감도 쫄쫄하고 맛도 많이 달지 않아서 간식으로 딱이에요.

민쌤: 아, 정말 먹어 보고 싶네요.

권쌤: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죠?

민쌤: 혹시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다른 디저트가 있나요?

권쌤: 많지요. 그 중에서 제가 즐겨 먹는 크로플이라는 디저트가 있어요.

민쌤: 크로플요? 음, 그것도 처음 들어 봐요. 어떤 디저트인가요?

권쌤: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넣어 구운 거예요.

민쌤: 그런데 생지가 뭐예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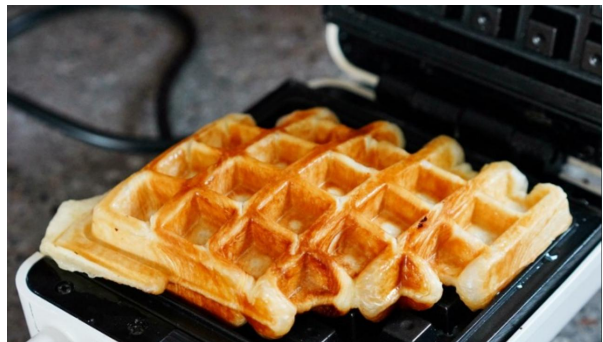
권쌤: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잖아요?

민쌤: 네, 반죽은 알아요.

권쌤: 그렇게 밀가루, 버터, 소금으로만 반죽을 해 놓은 상태를 생지라고 해요.

민쌤: 그렇군요. 그럼 크로와상 모양의 반죽을 와플 기계에 넣어 눌러 준다는 거지요?

권쌤: 맞아요.



출처: [꼬마췌췌님 블로그](#)

민쌤: 그럼 크로와상과 와플이 합쳐져서 크로플이 되었나 봐요.

권쌤: 네. 와플 기계에 구운 크로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

민쌤: 와, 한국은 신기한 디저트들이 참 많네요.

권쌤: 한국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

민쌤: 그렇지요? 어 그런데 권 선생님, 저는 ‘디저트 투어’(dessert tour)라는 말도 들어 봤어요.

권쌤: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, 맛있는 디저트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말이잖아요.

민쌤: 그렇군요. 저희 딸도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친구가 추천해 준 카페를 찾아다니더라고요.

권쌤: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예쁜 사진도 찍어 올리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.

민쌤: 권 선생님도 해 보셨어요?

권쌤: 물론이지요. 친구들 만나면 밥 먹고 나서 꼭 맛있는 디저트 가게를 찾아가요.

민쌤: 그렇군요.

권쌤: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디저트 투어가 인기예요.

민쌤: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저도 하루쯤 디저트 투어를 다녀 봐야겠어요.

권쌤: 제가 유명한 디저트 가게 추천해 드릴게요.

민쌤: 정말요? 고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한국의 디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어요.

권쌤: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디저트들이 있나요?

민쌤: 소개해 주고 싶은 독특한 디저트가 있다면 저희에게도 알려 주세요.

권쌤: 그리고 똥카롱과 크로플 사진을 대본에 올려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

민쌤: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권쌤: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갖고 다시 찾아뵙게요. 안녕히 계세요.

민쌤: 안녕히 계세요.